

다양한 악기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전문음악인 양성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http://music.khu.ac.kr/
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3001](http://music.khu.ac.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3001)



고전부터 21세기 신 음악까지 모든 영역의 음악을 다루다

기악과는 다양한 악기를 통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음악인 양성과 창작 음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업들은 이미 갈고닦은 재능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 단순히 악기를 더 잘 만지고 다룰 줄 아는 인재가 아닌 큰 시각으로 음악과 예술을 바라보는 전문 음악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만이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교양과목들은 조금 더 넓은 지식으로 초대하여 깊이 있게 음악에 접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고전부터 21세기 신 음악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음악을 다루며, 새로운 연주기법의 습득 및 변화하는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만국 공통 언어인 음악을 통한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악과의 두 갈래, 피아노전공과 관현전공

기악과는 크게 피아노전공과 관현전공으로 나뉩니다. 전문 음악인이 되기 위한 공통 수업으로 화성학 및 음악분석, 시창청음, 음악감상 및 해석, 대위법 및 음악형식, 총보독법, 지휘법 등의 음악이론 수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각자의 전공을 살린 반주법, 피아노 듀오 같은 수업이나 교향악, 현악합주, 관악합주, 오케스트라 레퍼토리 등과 같은 수업도 제공합니다. 특히 공통으로 제공되는 실내악 수업의 경우, 피아노전공 학생들은 관현전공 학생들과 같이 실내악팀을 꾸려 교수진의 팀티칭을 통해 각자의 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은 물론 타 전공의 관점에서 곡을 바라보는 시각도 배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진행되는 마스터클래스는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를 초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명 연주자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초빙강사의 탁월한 해석으로 음악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음악과 철학 특강, 음반기획사 및 음악잡지 기자 특강, 톤 마이스터 특강 등 음대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여 급격하게

교내, 외에서 실시하는 연주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진로들이 있을지 같이 모색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전공의 경우 2월과 8월, 장학 콩쿠르를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여주는 동시에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교내, 외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주회는 학생들의 예술적 사명감을 높이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현전공의 경우 교내외에서 매 학기 열리는 오케스트라 연주들은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연습 뒤에 오는 보람과 성취감을 학생들에게 안겨줄 뿐 아니라 감상하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성공적인 무대를 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서는 해마다 초청받아 성공적인 연주를 해내고 있습니다.

실력과 연주자이자 우수한 교육자인 교수진들

기악과 교수진들은 모두 국제적인 무대에서 인정받은 실력파 연주자들이며 현재도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별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정성으로 교육하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연주하는 실내악 음악회 등을 통해 학생들과 실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에 대한 기본자세나 고충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고강도의 개인 레슨은 음악춘추, 중앙, 동아 콩쿠르,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 등 국내 대회에서의 입상으로 연결되어 좋은 경쟁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명 연주단체와 협연하는 신진 피아니스트 및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본교의 강사진으로 출강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유학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롤 모델이 되는 졸업생들의 행보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 입상 이후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졸업생을 비롯, 수원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충북도립교향악단, 충남도립교향악단 등 국내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재학생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으며, 교육계로 진출하여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예고 졸업생과 일반고 졸업생의 수업에 차이가 있는지?

시창·청음과 같은 과목에 있어서는 분반으로 해결하지만,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가능한 맞춤형 수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론 과목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반은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선택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실기 관련 과목들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철저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대학생 때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대학교 4년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본인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공 분야가 어떤 것인지, 학생의 꿈과 현실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지를 가장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이 음악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악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공분야에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수업들(관현악 수업과 실내악 수업, 개인 전공 레슨, 교육 분야 관련 수업 등)을 통해 본인이 어떤 분야에 더 맞는지를 파악한 후 방향을 정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교수님들과의 열린 상담을 통해 진로나 방향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